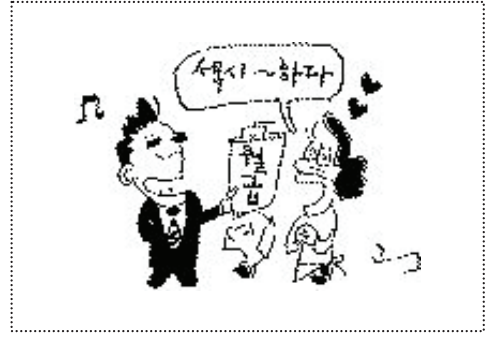




박소현의 섹시.시.토크

망년회를 한다고 오랜만에 모인 그녀들이 고깃집 구석진 방에 일제갑치 자리를 잡았다. 경기 불황에 감원바람, 거기도 누구네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장기 휴가까지 들어간 상황이었지만 일 년에 딱 한번인 오늘 하루만큼은 먹고사는 고민은 잊고 마냥 즐겁게 놀기로 합의를 봤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불황이니 반값이 된 콘드니 하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약속까지 받아들였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합했다는 소리를 빼고 이야기기를 하려니, 할 말이 생각 나질 않는 것이다. 애들 이야기도 다른 친구 근황도, 몇 마디 하고 나니 밀친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다 새로운 주제로 물고 가 트인 것이 바로 남편 흥분기였다. 한 친구가 남편이 너무 술을 좋아해 필치가 아프다고 하자 옆에 있던 친구가 남편이 너무 지저분하다며 흥을 보기 시작했다. 그 다음 친구는 남편의 계층을 욕하면서 삼시간에 그 자리는 남편 성토의 장으로 바뀌고 말았다. 한참 그렇게 남편에 대한 욕이 이어진 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너무 심했다 하는 생각이 찾아든 것이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다. "그래도 망년회인데 남편 욕만 해서 되겠다? 좋은 점도 말해보자."

"막연히 좋은 점을 말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남편이 섹시해 보일 때를 말해볼까?" 그 말에 다들 "됐어, 섹시는 무슨~" 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미 머릿속으로는 내 남편이 언제 섹시했었나 하고 생각하는 눈치다.



"사워하고 머리 털면서 나올 때 조금 섹시하기도 하지." "가끔 허리 구부러져 서랍 열고 뭐 꺼낼 때, 뒤에서 보면 엉덩이 라인이 섹시하지, 그 자세에서 는 뱃살이 안보이거든." "난 운전하면서 후진할 때, 남편이 한쪽 팔을

보조석 위에 걸치잖아. 그럴 때 가슴팍이 좀 섹시해 보이더라." 이 대목에서는 다들 박수를 치며 동의했다. "주자 잘 해도 은근히 섹시해 보이잖아.", "전 등 한 번 갈 때도."

소파에 누워 TV 볼 때 그것도 일요일 하루 종일 만취되어 바로 잘 때 제일 안 섹시해 보여

"난 월급날이 제일 섹시해 보이더라. 보너스 받은 달은 몇 배 더 섹시하고." 이 말에도 열렬한 호응이 쏟아져 나왔다. "진정부모님께 잘 할 때.", "나한테 선물 사 줄 때도."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주제가 섹시한 남편이

내 남편의 섹시 포인트 찾기

아니라 착한 남편이 된 것 같았다. "남자로서 섹시한 포인트를 찾으셨더니 왜 그 착한 남편 타령을 하는거야?" "어쩔 수 없어. 여자는 몸보다 머리로 느끼는 게 더 많잖아." "맞아. 아무리 조인성 몸매 찰치는 남자라 해도 마음과 행동이 못나면 전혀 섹시하지 않아." 처녀시절 나쁜 남자를 좋아하던 그녀들은 없었다. 그녀들에겐 오로지 착한 남자, 거기에 더해 돈 잘 버는 남자만 있을 뿐이다. "그럼 남편이 제일 안 섹시해 보일 때는 언제야?" "소파에 누워 TV 볼 때.", "술에 락이 되어 들어오자마자 넘어질 때." 이야기는 다시 남편 흥분기로 돌아서고 있었다. 남편들은 잠시 섹시한 남자가 되었다가 게으르고 술 좋아하는 남편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해마다 망년회를 하고 또 새해가 되는 것처럼, 그녀들의 남편도 큰 변화없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섹시한 남자가 되었다가 매력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남편이 되었다가 할 것이다. 그 사실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는, 바로 그녀들이었다. <연애칼럼니스트>

리빙 센스

올바른 스타킹 착용법

- 운동을 하거나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할 때는 되도록 스타킹을 신지 않도록 하고, 탄성을 살려주기 위해 신기 전에 양쪽으로 한두 번 늘려준 다음 착용한다. ① 발 끝부터 허리 부분까지 모아 쥐고 발끝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도록 한다. ② 발 끝부터 서서히 잡아당겨 뒤꿈치에 꼭 맞게 신는다. ③ 발 끝을 충분히 펴고 일정한 힘으로 천천히 종아리와 무릎 윗부분까지 잡아당긴다. 스타킹 조직이 풀고투 풀어 당겨졌는지 확인한다. ④ 무릎 위 15cm 정도까지 올려 신으면 양손을 팬티 부분에 넣어 광광하게 늘리면서 잡아 올려준다. ⑤ 팬티 밑의 부분이 몸에 꼭 맞게 조절한 다음 엉덩이에서 허리까지 잡아당겨 올린다. 다 신으면 뒤틀림이 없도록 손바닥으로 전체를 마무리한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2월 19일(음 11월 22일 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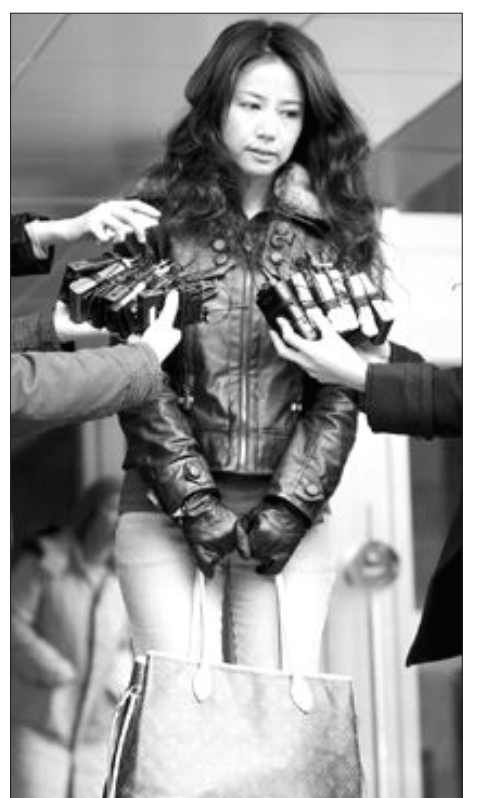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for the day. Each row includes the zodiac sign, a brief description of the day's luck, and a numerical value.

Advertisement for Derma 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간통혐의 배우 옥소리 유죄 선고 '클릭'

언어에 전해진 쓸쓸한 소식으로 연예계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난 15일 폐암으로 투병중이던 광주출신의 배우 박광정씨가 세상을 떠났다. 개성과 배우로 사랑을 받아왔던 박광정씨는 올해 초 폐암 판정을 받은 후에도 MBC 드라마 '누구세요'에서 출연하는 등 무대를 떠나지 않고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 팬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잉꼬부부부 알려졌던 MBC 신동진 아나운서와 텔레트 노현희가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으면서 검색어 순위에도 등장했다. 지난해 부터 불화설이 흘러나왔던 두 사람은 현재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혐의로 기소된 배우 옥소리가 유죄 선고를 받으며 네티즌의 눈총을 받았다. 1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배우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정 모씨와 교제를 나눈 혐의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과도한 유희비를 지출한 배우자의 책임도 적지 않다. 또 사회에 알려진 공인으로 충분히 비난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옥소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통제에 대한 논란도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진통제 성분중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에 대한 위해성이 제기되면서 이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졌다. 지난 10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은 진통과 해열 효과가 뛰어나지만 골수기능을 떨어뜨려 혈액질환, 의식장애, 혼수, 경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선진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의 안전성 조사를 촉구 했었다. /김여울기자 woor@kwangju.co.kr



지난 17일 오전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옥소리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길 수 없는 천지대배 페어부 결승 10보(190~220)



흑 ▲로 봉쇄해 최후의 대화전이 벌어지고 있다. 흑 191로 들여다 보고 193으로 막은 것이 최선이며 최강수였다. 백 190은 수가 늘지는 않지만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198로 끊어가는 이득이 보장되고 있다. 이때 흑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가'로 199에 잇지않고 '가'로 몰아야 하지만 그러면 수상전 때 '나'로 수를 줄일 수가 없어 백이 한수가 늘게 된다. 198로 끊은 효과로 204로 몰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고 이 수가 또 절대패감이 되어 좌상귀에서 패를 할 때 큰 도움이 된다. 백 200으로는 207에 잇고 뒤를 조여가도 이 수상전은 백이 정답이다. 그런데도 전남 팀은 204로 모는 절대 패감을 받고 바로 200으로 들어가 기어이 패로 버틴다. 천지대배가 벌어졌지만 백은 212로 두는 패감이 남아 있는데 비해 흑은 오른쪽 흑 대마가 미생이라 패감이 전무한 상태다. 결국 219로 이어 비기기는 했으나 220으로 지켜서는 대처로 백의 승리가 결정되었다. 백 206, 214, 219-△, 흑 211, 217-203, 백 218-201. <오규철 9단·본보 비독 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1214>

How about in an hour? 한 시간 후면 어떨까? A: Are you hungry? B: Not really. A: Oh. When would you like to eat? B: How about in an hour? A: 배고프니? B: 그다지 고프지는 않아. A: 음, 언제 먹을까? B: 한 시간 후 어떨까? \* How about ~? = How do you think about ~? \* in + 시간 명사 = ~이 지나서 \* 언제 집에 가고 싶니? = When would you like to go home?

오하오우 니혼고 <1214>

喉給(のどあめ)を上(あ)げましょうか。 목캔디를 드릴까요. A: ゆふべから かぜきみてのどが痛(いた)いです。 咳(せき)が出(で)て痰(たん)が絡(から)むんですが. B: 喉館(のどあめ)を上(あ)げましょうか. A: 어젯밤부터 감기 기운이 있고 목이 아픉니다.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어서~ B: 목 캔디를 드릴까요. 목이 붓다: のどがはれる. 오한이 들다: 寒氣(きむけ)がする. 코가 막하다: 鼻(はな)がつかまる. 콧물이 나다: 鼻水(はなみず)が出る. 기침이 나다: 咳(せき)が出(で)る. 재채기가 나다: くしゃみが出(で)る.

니하오 쯡구워 <291>

現在几点? 지금 몇 시야? A: 现在几点? Xiànzài jǐ diǎn? 현재 몇 시야? B: 现在五点四十五分. Xiànzài wǔ diǎn sìshíwǔ fēn. 현재 몇 시야? A: 差一刻六点? Chā yíkè liù diǎn? 한 시각 전 몇 시야? B: 迟到了, 我们快走走吧! Chīdào le, wǒmen kuài zǒu ba! 늦었다, 빨리 가자! A: 지금 몇 시야? B: 5시 45분이에요. A: 6시 15분쯤이냐? B: 3각했다, 우리 빨리 가자! 差 [chā] 오차, 부족하다 一刻 [yíkè] (시간) 15분 迟刻 [chīkè] 지각하다, 늦다

한자 이야기 <931>

華而不實(화이부실) 꽃 화, 말이을 이, 아닐 불, 열매 실 화이부실(華而不實)은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 맺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람이나 사물이 겉으로는 보기 좋지만 실속이 없을 비유한다. 즉 사람들의 가식과 허영을 경계하는 말이다.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대부(大夫) 양처보(陽處父)가 위(衛)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노(魯)나라 영음(嬴邑)을 지나면서 한 객점에서 머물게 되었다. 객점의 주인은 양처보의 당당한 모습과 비범한 행동에 반하여 아내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런데 그리 멀리 가지 않아서 객점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가 그 까닭을 묻자, 객점 주인이 대답하길, "양처보는 다만 사납고 강한 성질로만 쳐세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덕이 없어서(華而不實)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집중시키고 있고, 이러한 사람을 따르다면 몸을 안전하게 보존하지도 못하고, 이익은커녕 도리어 그의 재물에 관련 될 것 같아 돌아온 것이요." (春秋左氏傳)라고 하였다. 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하는 '화이부실'을 속담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도 표현한다.